

# 日本の 明治維新論\*\*

金 容 德\*

## I

역사적 사실로서의 明治維新은 1867년 12월 9일(음력) 王政復古 즉 統治權이 德川將軍으로 부터 天皇에게로 돌아 간 것을 말한다. 그러나 近代의 시작 또는 前近代에서 近代로 넘어가는 變革期로서 明治維新이라는 역사현상을 파악하려 할때 論者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變革期를 보는가에 따라 그 理解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여러 論議에 나타나는 明治維新의 時期區分을 중심으로 日本에 있어서의 研究動向을 살펴보려 한다.

## II

먼저 諸說의 소개에 앞서 德川體制 그리고 末期의 解體過程과 明治國家 成立期의 중요한 변화를 一瞥하여 본다. 德川體制는 幕府에서 중앙 집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幕藩體制이다. 兵農分離, 石高制 그리고 鎖國에 의해 이 體制는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兵農分離란 武士와 農民의 신분을 철저히 분리시킨 것으로서 武士를 그 사회적 기반인 농촌으로 부터 유리시킴과 동시에 農民은 封建小農으로서 농촌에 고정시켰다. 이와 함께 武士는 大名의 城下町에 集住케되어 실제로 土地와는 無關한, 俸祿에 의해 생활을 영위하는 신분이 되었다. 商人도 또한 城下町에 集住시켜 상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兵農의 分離는 사실상 兵·農·商의 分離效果를 가져올 수 있었다.

\* 서울大學校 人文大 助教授(東洋史學)

\*\* 이 글은 1980년 8월 11일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封建體制下에서 農民은 土地를 法的으로 私有할 수 없었다. 耕作地에 대하여는 官에서 檢査한 후 그 等級에 따라 產出高(石高)를 定해 주는 것이었다. 石高에 따라 바치는 農民의 年貢은 大名의 收入源이 되어 大名의 經費 및 武士들의 俸祿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石高는 年貢을 넘어서 모든 부담의 기준이 된 것으로서, 크게는 藩의 總石高에 따라 幕府는 大名에게 軍役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위임하는 것이었다. 또한 年貢米 및 特産物의 全國的 市場인 大坂等の 大都市를 幕府에서는 直轄領으로 하여 國內流通機構를 장악할 수 있었다.

鎖國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고정된 이 체제를 濫存하기 위하여 또한 對外交易을 幕府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취한 정책이었다. 藩의 독자적인 對外交渉은 일체 금지되었기 때문에 西洋 世界와의 접촉은 幕府直轄領인 長崎에서 네델란드와 地味하게 이어 올 뿐이었다. 朝鮮·中國과의 交易도 幕府에서 직접 관리하여 그 交易의 利를 독점함과 동시에 國內市場을 이에 연결시켜 통제할 수 있었다.

고정된 幕藩體制에 대한 비판은 18세기 초반부터 農業生産力의 向上·商工業의 발달·武士層의 解弛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지만, 解體의 징조가 사회표면에 노출되는 것은 1830年代(天保期)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一世紀間 거의 정지하고 있었던 人口가 增加하기 시작하여 農業生産力이 급속히 발달함과 동시에 先進地域에서 小規模이긴 하지만 工場制手工業(메뉴팩츄어)이 나타나는 것도 이때부터이다. 商品流通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都市特權商人들의 獨占이 붕괴되어 감에 따라 幕府財政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형제아래에서 貧富의 隔差가 深化되어 貧民이 漸增하는 데에다 幕府對策에 대한 불만으로 大坂에서 大規模 民亂이 勃發하여(1837년 大鹽平八郎의 亂) 幕府와 藩에 큰 충격을 주었다. 權威를 잃어가는 幕府로서는 藩自體로 改革하여 自立化하여 가려는 有力藩들을 制壓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藩과의 對立을 自招하여 갔다. 都市特權商人들의 組合(株仲間)을 해산하여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추어 보려던 幕府의 계획도 실패함에 그들로 부터의 지원도 잃게 되었다. 幕藩體制의 解體危機에 對應하는 幕府와 藩의 “絶對主義化” 시도가 1830年代 以後 露骨化되는 것이다.

國內的인 解體要因의 성숙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1853년 페리(Perry)의 來航에 의한 鎖國의 解除와 1859년 이후의 外國에 대한 日本市場의 開放이다. 外國商品의 流入으로 舊生産 및 農村構造는 激變하고 幕府 直轄領의 年貢減少 추세로 되어 幕藩體制的 土地所有·生産方式은 붕괴되어 갔다. 外勢에 對處할 能力을 갖추지 못한 幕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不平武士 및 豪農層의 일부에서 尊王攘夷運動으로 표면화하여 有力藩의 지원아래 倒幕運動으로 변하여 갔다. 中央權力인 幕府가 地方勢力인 長州藩 征伐에 실패함으로써(1866년) 幕府의 支配權은 無力化하여 갔으며 社會下層에서 광범하게 번져간 “에에자나йка” 騷亂은 舊秩序의 終焉이 全社會에 미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1868년 明治政權의 성립과 함께 舊制度의 철폐 및 國家統一事業이 진행되어갔다. 舊來의 藩을 廢하고 새로운 地方行政單位로 縣을 설치하였으며(1871년) 1873년에는 徵兵令과 地租改正法을 發布하여 新政府의 기초를 다져갔다. 武士層의 俸祿을 점차 削減하여 가던 明治政府는 1876年 “金祿公債”를 발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封建的 特權을 해소하였으며 1877년에는 전국적으로 地租改正事業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土地의 私有家法的으로 보장되었다. 石高制下에서의 現物年貢은 새로운 地租制度에 따라 地價의 2.5% 金納으로 확정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強行的인 政府施策에 반대하는 그룹은 明治政權內部에서 離脫하여, 舊特權을 유지하려는 保守派는 1877年の 西南戰爭에서 敗하여 脫落하였고, 近代的 立憲制를 내세운 그룹은 自由民權運動을 일으켜 反政府的 사회적 기반을 넓혀갔다.

明治十年代 前半의 인플레이션으로, 근소한 公債밖에 받지 못한 中下級武士들은 몰락하는 한편 막대한 액수의 公債所有者들인 上級武士들은

國立銀行을 통해 公債를 資本으로 전환하여 特惠를 지킬 수 있었다. 또한 政府의 殖産興業政策은 國家資本에 政商資本을 유도한 “위로 부터의 資本主義化”政策이기도 하였다. 또한 政府의 一方的 方針에 반발하는 自由民權運動의 擴散을 막기 위하여 1881年 政權內에서 民權同調派를 除去하는 한편 運動自體에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다.

明治 十年代 後半에는 紙幣整理로 인한 극심한 デ플레이션으로 農村經濟는 큰 타격을 받아 中·貧農層의 窮乏化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挫折한 自由民權運動의 農村指導者 및 몰락하는 豪農들의 지도아래 中·貧農들의 폭동이 1884년 群馬·加波山·秩父 等地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들 분산적인 폭동은 정부의 탄압과 분열책으로 진압되고 明治政權은 確立期에 들어갔다. 1880年代는 “殖産興業”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對外擴張政策을 준비해 가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1889년의 明治憲法制定과 이듬 해의 帝國議會 開設로 明治政府의 체제는 완비되었다고 하겠다.

### Ⅲ

明治維新을 광범위한 사료의 분석위에서 이론적 평가를 하려는 작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二次大戰以後부터라고 볼 수 있다.

服部之總는 明治維新을 絶對主義의 形成과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라는 두 현상이 서로 대항하는 二重過程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二重過程의 矛盾을 급격하게 深化시키는 契機를 開國(1853년 페리의 來航 또는 1859년 開港)에서 찾아 維新의 始期로 잡고 있으며, 終期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自由民權運動)을 완전히 壓倒하여 天皇制 絶對主義 國家가 確立되는 1889年 憲法發布時로 규정한다(『明治維新における指導と同盟』『服部之總著作集』第五卷, 1956).

天皇制 絶對主義의 成立으로 維新을 보는 입장은 동일하나 그 時期를

분석하는데 遠山茂樹와 井上清는 견해를 달리한다. 遠山茂樹는 1830年代에서 40年代初에 걸치는 天保期를 始期로 잡고 있다. 이 때 “農民的·小市民的”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에의 투쟁의 싹이 표면에 나타나는데 대하여 領主層은 封建支配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對抗關係에서 封建權力은 絶對主義化하는 것이다. 明治維新의 終期는, 그 主體勢力이었던 倒幕派의 政治的 生命이 끝나고 新政權의 主導勢力이 成立하는 西南戰爭(1877년)으로 파악하고 있다(『明治維新』, 1951). 井上清는 維新을 이끌어 갔던 有力藩의 변화에 着目하여, 絶對主義化의 基點을 天保改革에서 찾고, 終期는 그 權力이 天皇制統一國家를 수립하는 1871년의 廢藩置縣으로 본다(『日本現代史 I, 明治維新』, 1951).

국가형태가 幕藩體制에서 天皇制 絶對主義로 변하는 그 내면의 基本的 階級關係의 변화를 기준으로 明治維新을 파악해야 한다고 堀江英一은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837년 大鹽平八郎의 亂에서 幕藩領主와 農民階級の 對立이 기본적 계급모순으로 나타나며, 1884년의 農民暴動에서 寄生地主層이 絶對主義體制側에 同調함으로써 기본적 대립은 寄生地主層과 一般農民間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維新은 1837년에 시작되어 1884년에 끝난다는 것이다(『明治維新の社會構造』, 1954).

中村哲는 明治維新의 과정을 國家權力·階級關係·經濟權造의 變革으로 보아 始期는 天保年間(1830年代), 終期는 1889~90년(憲法公布·帝國議會開設)으로 잡고 있다. 즉 國家權力 面에서 幕藩封建權力이 붕괴되어 近代 天皇制權力이 확립되는 것이며, 계급관계에 있어서는 幕藩領主層과 封建的 小農民의 대립으로 부터 天皇制를 지지하는 地主·부르조아層과 小作·賃勞動層間的 대립으로 변화하며, 경제구조는 幕藩封建制가 解體되어 軍事的 半封建的 資本主義制로 변질된다는 것이다(『明治維新の基礎構造』, 1968).

絶對主義 統一國家가 성립하는 정치적 변화로 明治維新을 파악하려는 原口清는 1868년에 絶對主義 權力이 성립하나, 이는 明治十年代の 自由

民權運動과 국제적 환경의 압력 속에서 “自己延命”을 위해 스스로 修正한다고 본다. 그 수정형태는 1881년의 政變以後 구체화되었다. 이 때 政府側에서 民權勢力을 제거하면서도 十年以內에 憲法制定과 議會開設을 약속한 사실을 중요시하여 立憲制的 修正을 가한 近代 天皇制 絶對主義로 방향이 정해 진다는 것이다(『日本近代國家の形成』, 1968).

田中彰은 明治維新을 日本民族의 近代的 統一過程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1853년 鎖國이 무너지면서 世界속에서의 日本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國權적 통일결정적 계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終期는 1879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 해에 琉球가 沖繩縣으로 編入되어 近代日本의 領域이 확정되면서 中央集權的 近代國家機關이 확립되기 때문이다(『體系日本歷史 5：明治國家』, 1967).

幕藩體制를 치탕해 온 諸要素가 분해되어 가면서 새 體制가 성립하는 것으로 明治維新을 보는 입장에 中村政則가 있다. 鎖國을 포기하면서 (1854년) 舊體制는 붕괴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1876~77년경, 즉 金祿公債를 발행하여 武士層의 封建的 特權을 해소하며 또한 地租改正事業을 定着化하는 단계에서 兵農分離 및 石高制까지 끝나는 것으로 維新過程이 一段落된다는 것이다(『大系 日本國家史 4, 近代 I』, 1977)

#### IV

明治維新을, 사회의 특정한 요인을 추출하여 그 변화를 추적하는 입장을 떠나, 사회체제의 전반적 변화——舊體制가 붕괴되면서 新國家가 성립되는 기초——라는 면에서 볼 때, 既述한 바 幕藩體制의 기본적인 요소인 兵農分離·石高制·鎖國의 解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相互聯關的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붕괴되기 시작하면(1854년 開國) 舊體制全般에 걸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世界에 대하여 門戶를 開

放함으로써 社會內部에서 形成되어 오던 諸變化를 急速化시킴과 동시에 變革의 방향도 國內外的인 條件에 制約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舊體制의 根幹을 解體하는 改革은 1876년 金祿公債의 발행과 1877년 地租改正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時點에서 일단 완성되었다고 보겠다. 兵農分離에 따라 俸祿에 의해 그 신분을 유지하던 武士層의 존재가 否定되었으며, 石高制의 바탕 위에서 모든 부담이 결정되던 것은 土地私有化의 法認과 새로운 稅制의 創出로 無効化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877년 西南戰爭으로 封建的 領有權을 주장하던 保守的 武士勢力은 사라지고 만다. 상징적으로는 이 해 維新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木戶孝允이 病死하고 西郷隆盛는 自殺하며, 大久保利通 또한 이듬 해 5월 暗殺 당함으로써 1878년부터는 明治國家를 건설하는 다음 세대로 권력이 넘어갔다. 幕藩體制의 구체적인 붕괴의 시작으로부터 그 과정이 끝나는 때(새로운 社會體制의 기초수립)까지를 明治維新期라고 파악할 때 1853년~1877년 간을 그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